

2026년 7월 5일

인도: 박현수 목사

*예배로의 부름 ----- 인도자

*신앙고백 ----- 다같이

사도신경

*찬양 ----- 다같이

-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/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
-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(찬455)

참회의 기도 ----- 다같이

로마서 4:25-5:1

봉헌 ----- 다같이

내가 무엇을 가지고

기도 ----- 김태중 장로

성경봉독 ----- 인도자

로마서 8:1-15

특별찬양 ----- 찬양대

원해

설교 ----- 박현수 목사

“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!”

*찬양 ----- 다같이

성령이 오셨네

*결단의 기도 ----- 다같이

*축도 ----- 박현수 목사

*표는 일어서서

헌금은 입구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.

(Zelle 온라인헌금: highland.giving@gmail.com)

P C A 하이랜드교회

한인중부노회

Highland Presbyterian Church

담임목사 박현수 (Rev. Jason Hyunsoo Park, Pastor)

820 S. Milwaukee Ave. Vernon Hills, IL 60061 ☎(847) 634-6033

www.highlandchurch.com (web) highlandchurch1977@gmail.com (교회)

parkhyunsoo@hotmail.com (담임목사) hellofromhighland@emweb.com (EM Web)

저 높은 곳을 향하는 하이랜드 교회

반석 위에 세운 교회! (마 16:18)

◀ 불편함을 떨쳐 버리십시오! ▶

저는 글을 쓰고 설교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문법에 민감합니다. 그런데 한국을 가보니 문법이 많이 파괴되어 듣기가 거북한 말들이 많았습니다. 예전에 카페 종업원들이 “커피 나오셨습니다” 이렇게 커피를 높였는데, 요즘은 그렇지 않았지만 여전히 거북한 말들이 있었습니다. 그 중 한 가지는 “이리로 오실게요, 이것 하실게요” 이런 말입니다. ‘... 할게요’라는 말은 말하는 자의 의지를 표현하는 말입니다. 내가 이것을 하겠다, 저리로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지 다른 사람이 내 의지를 대신 강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. 또 한 가지는 “이렇게 하시면 됩니다” 이렇게 두 번 존대하는 것입니다. 존대는 한 번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존대는 사람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‘이렇게 하시면 됩니다’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. 그런데 매번 두 번 이상을 존대하는 말을 들으면서 많이 불편했습니다. 미국에 36년 산 사람보다 문법을 모르니 일일이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. 그렇지만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. ‘언어는 그 시대 사람들의 약속’이라는 것입니다. 문법에 맞고 틀리고가 문제가 아니고,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사용하면, 그것이 문법이 되는 것입니다. 세상에 변해가는 것들이 많아서 우리를 불편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. 그러나 그 불편함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-박목-

◀ 광고 ▶

- 당회: 오늘 (7/5) 친교 후 당회장실
- 구역예배 안내: 2구역(7/5, 3:30pm 교회), 3구역(7/5, 3:30pm 교회), 4구역(7/5, 3:30pm 교회)
- 협력기도: 김영자(김택문), 이명표, 이오덕, 남궁운자, 김형곤(김순자)
- 다음주 기도: 최의순 장로
- 이번 주 봉헌위원: 홍영하 집사, 다음주 봉헌위원: 이정애 권사
- 금요일예배 기도: 한문선 권사
- 친교: 이번주- Aaron Wu, 김민우, 김민수/ 다음주- Joey Wang 집사
- 7월 뒷정리: 2구역

◀ 모임안내 ▶

- 금요 찬양예배: 매주 금요일 오후 7시30분
- 토요 새벽기도회: 매주 토요일 오전 6시
- Youtube QT 방송: 매주 수요일

◀ 교회를 섬기는 분들 ▶

담임 목사 박현수
E.M 목사 정영준 (Jonny)
교사 Chris Choi, Jemimah Chae
시무장로 최의순 김태중
성가지휘 강수경
반주 Adam Kastler
찬양팀 최의순 최의설 강수경

◀ 후원 선교사 ▶

케냐 - 강충만
말알 선교단 - 남성우
NOVO(NK) - 서예레미야
Pipeline Ministry - 심수영
REI - James Kang

*우리는 교인의 1%를 선교 보내는 1% 챌린지 교회입니다!